

수박만세

이선미 글·그림



주제	걱정을 주제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공감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걱정, 고민, 경청, 공감, 위로, 조언, 마음, 감정, 두려움, 우정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체육 [4체03-03] 게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한다.
작성	창원 풍호초등학교 박경미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과일을 먹다가 씨를 삼켜버린 아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생각이 “씨앗이 뱃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닐까?” 일 것입니다. 아이는 삼킨 수박씨가 뱃속에서 자라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걱정으로 커지고 커져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씨가 돌아나고 쭉쭉 자라나 수박이 주렁주렁 열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이는 할 수 없이 수박을 달고 학교로 갑니다. 교실에 도착하니 포도 넝쿨을 몸에서 키우고 있는 친구, 머리 위에서 살구나무가 자라고 있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모두들 꿀꺽 삼킨 씨앗 때문에 걱정을 하느라, 밤새 넝쿨을 키우고 나무를 키워 열매까지 맺었던 것입니다. 걱정이 만들어낸 아이들의 기이한 모습에 놀란 반 친구들은 그들의 걱정을 듣고 나누기 위해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걱정되고 힘든지를 함께 공감하며 들어주고 건네는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은, 아이들이 밤새 걱정으로 키운 수박 넝쿨과 포도나무와 살구나무들을 한순간에 펼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을 찾아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친구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
- 그림책을 읽고 걱정을 주제로 한 책을 만들 수 있다.
- 신발을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신발 멀리 차기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수박만세』는 걱정이라는 주제로 걱정스러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담은 그림책이다. 이 책에서는 친구의 걱정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친구들과 함께 걱정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멋지다. 이번 교안은 3~4학년 국어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아이들이 터무니없는 걱정으로 힘들게 하룻밤을 보내는 천진난만한 이야기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책에 나오는 친구의 고민을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아이들은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 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체·대인관계 역량도 기를 수 있다. 먼저, 동기유발로 ‘수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활성화한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그림을 자세히 살피고 내용을 파악한다. 읽은 후 활동으로는 다양한 선택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준비물

도화지, 다양한 색칠 도구, 선택 활동 놀이 도구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그림책과 만나기	1차시
	표지와 면지 살펴보기	
	놀이하기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파라텍스트 살펴보기	1차시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 - 등장인물의 마음 변화를 배경색의 변화로 알아보기 - 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읽은 후	【선택 활동】 - 소울메이트 찾기 - 걱정 멀리 날려 보내기 - 걱정을 주제로 한 우리 반 책 만들기 - 우리 반 고민 상담소	2차시

읽기 전

1. '수박' 떠올리기

■ 수박과 관련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수박' 하면 어떤 경험이 떠오르나요?

예: 동생은 수박 흰 부분이 아삭해서 맛있다고 흰 부분까지 먹어요.

엄마가 수박 흰 부분을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무와 비슷한 맛이 나서 신기했어요.

아빠와 수박 주스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밖에서 파는 것처럼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지난여름에 오빠와 수박을 먹으면서 '누가 수박씨를 얼굴에 많이 붙이는지' 시합을 했는데, 오빠 얼굴에 수박씨가 많이 붙어서 웃겼어요.

2. 표지와 면지 살펴보기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고 이야기 예측하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수박만세』입니다.
- 이 책은 이선미 작가의 작품이며, 출판사 글로연에서 나왔습니다.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한 아이가 수박 위에 서서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수박을 무척 좋아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이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름을 배경을 벌여지는 이야기 같아요.

아이 주변으로 수박 조각들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뒷표지를 보면, 아이가 수박 위에 올라서 있어요.

수박을 못 먹었던 아이가 수박을 잘 먹게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 앞면지와 뒷면지 살펴보고 이야기 예측하기

- 앞면지와 뒷면지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봅시다.

예: 앞면지는 수박에 세모 모양으로 칼집을 내서 수박 한 조각을 잘라냈어요.

엄마가 옛날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수박 한 조각 잘라서 잘 익었는지 보여주고 팔았다고 해요.

뒷면지에는 수박 껍질과 씨앗이 놓여 있어요.

수박 껍질은 웃는 입 모양, 수박 씨앗도 웃는 표정처럼 보여요.

수박을 사서 가족이 함께 맛있게 먹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3. 놀이하기

■ 좋아하는 과일 이름 대기 놀이하기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정합니다. 이때, 두 글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돌아가며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 소개가 끝나면, 박자와 동작에 맞추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1~4까지의 숫자를 함께 외칩니다.

- 이름이 붙인 사람은 박자와 동작에 맞추어 자기 이름을 외칩니다.
- 높은 난이도를 원하면 8박자에 맞추어 동작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놀이를 합니다.

읽는 중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주인공 ‘나’는 어떤 걱정을 했나요?
예: 꿀꺽 삼킨 수박씨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어요.
- 주인공 ‘나’와 비슷한 걱정을 하는 친구로는 어떤 친구가 등장했나요?
예: 포도 씨를 삼킨 친구, 살구씨를 삼킨 친구가 등장해요.
- 주인공 ‘나’의 걱정은 어떻게 사라졌나요?
예: 친구들이 걱정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줘서 걱정이 사라졌어요.

■ 파라텍스트 살펴보기

- 이 책에는 글자색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글자색이 다른 부분을 찾아봅시다.
예: 수박씨를 삼킨 아이의 이야기는 초록색으로 적혀 있어요.
포도씨를 삼킨 아이의 이야기는 보라색으로 적혀 있어요.
살구씨를 삼킨 아이의 이야기는 살구색으로 적혀 있어요.
- 이 책에는 글자 크기도 다양합니다. 글자 크기가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현했는지도 생각해봅시다.
예: 입에서 씹이 트는 장면에서 “앗!”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어요.
깜짝 놀란 아이의 마음과 글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에서 수박 넝쿨이 나오는 장면에서 “흠!”이라는 글자도 크게 적혀 있어요.
너무 놀라서 숨을 참는 아이의 모습이 한 글자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수박 속에 갇혀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만 적혀 있어요.
난감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줄임표로만 나타내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잘 표현되었어요.
씨앗을 삼킨 아이들의 걱정이 사라지는 장면에서 “평!”하는 글자도 깨져서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들의 걱정이 날아간 것이 글자로 잘 표현되었어요.
- 이 책에는 글자체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글자체를 통일하지 않고 다르게 쓴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예: 친구들이 지금까지 삼킨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과 씨앗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에서는 손글씨같이 보이는 글자체가 쓰였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장면과 글자체가 잘 어울려요.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문장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문장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수박씨가 진짜로 뱃속에서 자라나면 어떡하지?” 라는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수박씨 먹어서 뱃속에서 수박이 자라겠네.” 하고 놀렸는데, 정말인 줄 알고 울었어요. 그래서 나와 주인공이 닮은 부분이라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이 한참 동안 걱정을 들어주는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나도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내 말을 들어준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친구들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수박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요. 분홍색으로 물든 배경처럼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을 함께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 나는 평소에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주인공이 이해가 되었어요. 나도 주인공처럼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느라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걱정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걱정을 좀 덜고 싶어졌어요.

나는 평소에 걱정이 없는 편이라 터무니없는 걱정을 하는 주인공이 안쓰러웠어요. 터무니없는 걱정까지 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아요. 친구가 고민이나 걱정을 말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싶어요.

■ 작가의 말 읽어보기

- 표제지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을 읽어봅시다.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만들었는지 읽어봅시다. 작가가 이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마음속에서 한없이 커나가는 걱정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걱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또 덜어줄 수 있는 친구들의 힘을 『수박만세』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커가는데, 그럴 때는 걱정을 혼자만 하지 말고 친구에게 말하라는 것 같아요. 내 걱정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Tip.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고 그림책을 쓴 의도나 그림책에 담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

■ 등장인물의 마음 변화를 배경색의 변화로 알아보기

- 주인공이 꿀꺽 삼킨 수박씨를 걱정하는 장면에서 배경색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흰색에서 어두운 노란색으로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인물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을 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수박씨가 진짜로 뱃속에서 자라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잠을 못 자는 부분에서는 어두운 푸른색이이에요. 주인공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두운 푸른색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주인공 입에서 싹이 트고, 녀굴이 나오고, 수박으로 둘러싸이는 장면에서는 연필로 검게 칠해놓은 것 같아요. 주인공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연필로 표현했어요.

■ 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걱정이나 고민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봅시다.

예: 나와 나이가 같은 친구는 나보다 한 뼘이나 키가 큰데, 나는 부모님이 키가 작은 편이라 키가 쑥쑥 안 클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아프셔서 부모님께서 걱정이 커요. 나도 할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 돼요.

-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예: 나는 아빠와 함께 자는데, 자기 전에 아빠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우리 집 강아지에게 내 걱정을 말하면 강아지가 내 손을 핥아주는데 그러면 위로가 돼요.

읽은 후

【선택 활동】

1. 소울메이트 찾기

■ 밸런스 게임으로 소울메이트 찾기

- 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 문제를 내어봅시다. 낸 문제로 밸런스 게임을 하며 나와 잘 통하는 친구를 찾아봅시다.

예: 수박 먹을 때 수박씨 뱉기 VS 수박씨 삼키기

뺏속에서 씨앗이 자랄까 걱정한 적이 있다 VS 없다

걱정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댄다 VS 주변 사람에게 도움 청한다

학교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다 VS 없다

우리 반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VS 없다 등

2. 걱정 멀리 날려 보내기

■ 신발을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걱정 멀리 날려 보내는 놀이하기

- 책에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수박을 맛있게 먹으면서 수박씨를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과일을 먹고 과일 씨 뺏기 놀이를 해봅시다.

학교에서는 과일 씨 뺏기 놀이를 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신발 멀리 차기 놀이를 해봅시다.

신발이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이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차봅시다.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신발 멀리 차기 놀이를 해봅시다.

신발을 멀리 찰 수 있는 전략을 친구들과 함께 탐색해 봅시다.

신발 멀리 차기 놀이를 해 본 소감을 말하여 봅시다.

예: 신발이 지금 내가 가진 걱정이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뽕!’ 차버리니 속이 시원했어.

신발을 멀리 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멀리 안 나가서 속상했어.

친구가 신발을 힘껏 찼는데, 앞이 아니라 뒤로 날아간 게 재미있었어.

준비물도 따로 필요 없는 간단한 놀이였지만 예상보다 재밌어서 또 하고 싶어.

친구가 찬 신발에 맞을 뻔해서 깜짝 놀랐어.

Tip. 날아온 신발에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신발 멀리 날려 보내기 활동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 교실에서 신발 멀리 날려 보내기 활동을 할 때는 걱정을 적은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거나 종이비행기 접어서 던

리 날리기를 할 수 있다. 또는 콩주머니 던지기, 비석에 고민을 쓰고 비석 쳐서 넘기기 등을 할 수도 있다.

Tip. 독후 활동을 계획할 때는 교사 주도로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걱정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놀이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정하는 것이 더욱 좋다. 아이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독후 활동보다는 직접 고른 독후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열의를 보이는 편이다. 걱정을 날려 보낸다는 의미를 부여한 놀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즐거운 놀이 그 자체로 아이들은 불안과 걱정을 잊는 시간이 될 것이다.

3. 걱정을 주제로 한 우리 반 책 만들기

【만드는 방법】

① A4 크기의 도화지나 8절 크기의 도화지를 준비합니다.

② 도화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가진 고민이나 걱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오른쪽에는 고민이나 걱정이 해결된 내용을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Tip. 도화지 1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는 도화지 여러 장을 제공하여 고민이나 걱정이 해결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③ 여러 가지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합니다.

④ 완성한 작품은 친구들과 돌려가며 봅니다.

⑤ 비슷한 고민이나 걱정끼리 묶어 묶을 순서를 정합니다.

⑥ 도화지 뒷면끼리 서로 맞게 풀로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4. 우리 반 고민 상담소

【순서 및 방법】

① 종이에 고민이나 걱정을 적습니다. 이때,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② 친구들이 적은 고민이나 걱정을 상자에 담습니다.

③ 동그랗게 둘러앉습니다.

④ 한 사람이 상자에서 종이 한 장을 뽑아 친구들에게 읽어줍니다.

⑤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적힌 고민이나 걱정과 관련된 경험이나 조언, 위로,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⑥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경청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는 “패스!”를 외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패스”를 외칠 수 있으니 활동을 하는 동안 “패스”의 횟수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⑦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음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이어갑니다.

Tip. 동그랗게 둘러앉아 모든 사람이 발언 기회를 가지는 방식은 좋으나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시간이 많지 않거나 학생들이 말하는 활동보다는 쓰는 활동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면 순서 및 방법을 학급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민을 무기명으로 쓰고, 친구들의 고민을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자신이 공감하는 고민에 댓글을 쓰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다. 고민을 무기명으로 쓰더라도 누가 썼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평소 글씨를 쓰는 반대 손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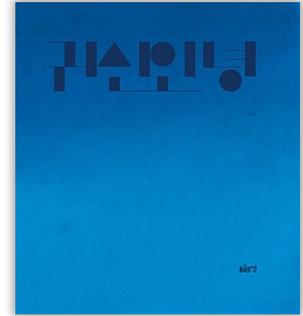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귀신 안녕 이선미 글·그림

깜깜한 밤이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 꿈쩍도 못하는 아이. 목이 말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아이는 꼭 잠을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서 귀신이 서성거리고 있을 것만 같아 너무 무섭기 때문이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귀신을 겁내던 아이는 자신이 왜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불을 박차고 어둠의 세계로 나온다.

그리고 왜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해나간다. 귀신의 뽀족한 손톱을 꺾어주고 헝클어진 긴 머리를 자신처럼 양 갈래로 묶어주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큰 숨을 들여 쉬고 귀신을 마주봤더니, 무섭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귀신 #감정 #두려움 #공포 #호기심 #안도 #극복 #놀이



비밀상자 김인자 글, 김보라 그림

작가가 읽어 주는 그림책 시리즈 ③

할머니와 손녀딸이 꾸며가는 조손가정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의 내용에 어울리게 작곡된 음악과 그에 맞추어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는 CD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글이 연이의 현실을, 그림이 그 주변에서 연이를 감싸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며 연이와 할머니를 위한 따뜻한 하모니가 연주되는 듯하다.

구멍 난 고무신을 늘 꿰매어 신는 할머니께 드리려고 새 신을 사놓은 손녀 연이. 그렇지만 선뜻 드리지는 못한다. 혹시 그 신을 신고 할머니가 멀리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미 엄마와 아빠를 떠나보낸 연이에게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은 매순간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되었는데...

#할머니 #사랑 #가족 #이별 #두려움 #감정

